함께한 첫걸음, 새로운 길을 열다

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가 10월 1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다. 이날 취임법회에는 참사 유가족, 산재 피해자 가족,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참석해 진우 스님과 걸음을 함께했다.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. 아픔의 현장에 귀 기울이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를 향해, 제38대 집행부의 새출발이 시작됐다.

〈편집자 주〉



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1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열고 '한국불교의 새 도약'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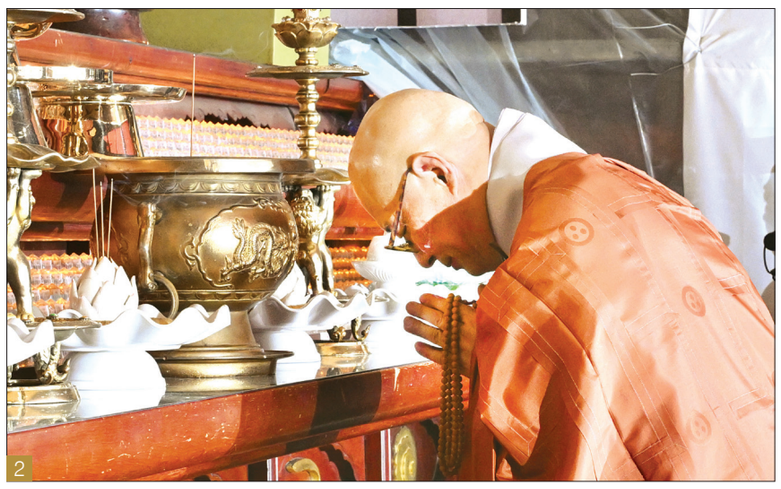
1



5



7


2



8


3

①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,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. ② 진우 스님이 취임법회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께 헌향하는 모습. ③ 김유진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정리해고 후 12년 만에 복직한 김승화 전 KTX 승무지부장이 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. ④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이 참석대중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. ⑤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"공의로 묻고, 공감으로 하나 되며, 공심으로 실천하겠다"고 선언했다. ⑥ 취임법회에는 종단 주요 스님들과 이웃종교 및 이웃종단 지도자, 국회의원,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. ⑦ 진우 스님은 대홍수로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니르말 프라사드 바타라이 주한 네팔 대사대리에게 10만달러(약 1억3623만원)를 전달했다. ⑧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연대활동을 이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에게도 1억원을 지원했다. ⑨ 불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진우 스님. ⑩ 부산BBS 불교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 '연꽃 피어오르리' 등 축가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.

사진=공동취재단


9


4


6


10